

저자 미상
국역 남성우
해제 방성혜

국역 知事公遺事

비매품

95510



9 788959 702411 (EPUB)
9 788959 702435 (MOBI)
9 788959 702428 (PDF)



한국한의학연구원

Table of Contents

원문·국역

지사공(知事公)께서 남기신 행적 知事公遺事	1.1
임상 사례 經驗方	1.2
주부 박군 朴主簿額	1.2.1
공이 한 번은 영의정 백헌 이경석을 찾아보었는데 公嘗謁白軒李相國	
서씨의 아내 徐生之室人	1.2.3 1.2.2
강령 황일의 딸 黃康翎鎰室女	1.2.4
병사 김여흠 金兵使汝欽	1.2.5
도사 김노득의 아내 金都事魯得室內	1.2.6
면천 이세유의 아내 李沔川世瑜室內	1.2.7
지평 김연의 아내 金持平演室內	1.2.8
도정 김수일 金都正壽一	1.2.9
백지원 白志遠	1.2.10
선비 정씨 士人鄭生	1.2.11
무인 최황 武人崔璜	1.2.12
선비 김기 士人金沂	1.2.13
김세헌 金生世憲	1.2.14
어떤 부인 一婦人	1.2.15
어떤 의사 一醫人	1.2.16

백 지사 묘표 白知事墓表	1.3
---------------	-----

해제·출판

해제	2.1
출판사항	2.2

1.1. 知事公遺事 | 지사공(知事公)께서 남기신 행적

公, 諱光玠, 字叔微, 系出林川. 早習弓馬之才, 入屬禁旅者, 盖爲家貧親老故也. 偶因墜馬落傷, 轉輒沈重, 將至癰廢. 邀致鄉醫有名者, 留置家中, 以爲療治. 凡其腧穴所注. 鍼灸所施, 心自默想, 兼解奇方, 於是, 慨然有志於司命之術. 常藏鍼子囊中, 每於射場有暇, 則輒出而磨之. 同射戲之曰:“君將欲殺人耶?” 公笑曰:“若曹他日必求活於我也.” 聞有瘡瘍者, 輒自往治之. 如是積久, 自然神悟. 見病者, 辨症候, 決死生, 一於形聲之間, 而無甚知者.

공의 이름은 광현(光玠), 자는 숙미(叔微)이며, 관향은 임천(林川)이다. 어릴 때부터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를 익혀 금려(禁旅; 도성수비군)에 들어갔는데, 이는 가난한 집안과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이었다. 우연히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각해져 장애인이 될 지경이었다. 그래서 유명한 시골 의사를 초청하여 집안에 머물러 치료하게 하였다. 혈이 흘러가는 길과 침.뜸의 방법에 대해 마음속으로 묵묵히 생각하여 기묘묘한 방법을 모두 통달하고는 개연히 생명을 주관하는 의술에 뜻을 두게 되었다. 항상 주머니에 침을 넣고 다녔는데, 군사 훈련에 틈이 날 때 마다 번번이 침을 꺼내서 날카롭게 갈았다. 동료 군인이 “그대는 장차 그 침으로 사람을 죽이려는가?” 놀리면, 공은 웃으며 “그대들이 나중에 반드시 나에게 목숨을 구해달라고 할 것이다.” 하였다. 종기가 난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즉시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해주었다. 이렇게 치료한 경험이 오래 쌓여 저절로 신묘한 깨달음을 얻었다. 병자를 보면 항상 그의 모습과 목소리 사이에서 증세를 변별하여 사생을 결정했는데, 제대로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有一市人, 病蹢躅不能行者, 市中見者皆笑. 聞公名, 來求治. 公知其病在於環跳穴, 鍼之, 數旬, 蹢躅者屈伸自如, 健步入市, 一市人皆驚. 聞其從公鍼, 由是名益彰, 病人雲集於門, 而車馬盈巷焉. 顯廟癸卯, 醫監提調金公, 以公爲治腫教授. 其秋白軒

李相國, 啓請公入屬太醫院, 皆以其術明也. 甲辰, 丁內憂, 服闋, 卽復入太醫院. 戊申, 再兼治腫教授. 辛亥, 上患¹腫甚重, 公進破腫議, 破腫後, 卽爲平復. 時公尙帶治腫教授, 未及出穴. 特旨陞堂上.

저자거리의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 다리를 절어 걷지 못했는데, 저자에서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비웃었다. 공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치료를 요청하였다. 공은 그의 병이 환도혈(環跳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침을 놓았다. 이삼십 일 뒤에 다리를 절던 자가 마음대로 다리를 접고 펼 수 있게 되어 건강히 걸어 시장에 들어가자 시장 사람들 모두 놀랐다. 공에게 침을 맞고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의 명성이 더욱 퍼져 병자들이 공의 집에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수레가 공이 사는 동네에 가득하였다. 현종(顯宗) 계묘년(1663, 현종4)에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 김공이 공을 치종 교수(治腫教授)로 삼았고, 그해 가을 영의정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이 성상께 아뢰어 공을 태의원(太醫院; 內醫院)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공의 확실한 의술 때문이었다. 갑진년(1664, 현종5)에 내우(內憂; 부친상)를 만나 3년상을 치르고, 탈상 뒤에 즉시 다시 태의원에 들어갔다. 무신년(1668, 현종9)에 거듭 치종 교수를 겸임하였다. 신해년(1671, 현종12)에 성상께서 목에 종기가 생겨 매우 위중하였다. 공이 종기를 터뜨리자는 의견을 냈는데, 종기를 터뜨린 뒤에 즉시 평상시의 상태가 되었다. 당시에 공이 여전히 치종 교수의 직분을 갖고 있어 그때까지 출륙(出穴)²하지 못했는데, 성상의 특별 교지로 당상관(堂上官)³으로 승진하였다.

癸丑, 仁宣王后患髮際腫瘍, 根甚大肆毒, 症候日飭. 雖些少粥飲, 不御者數日. 上命公入診, 公請以鍼破去瘡根, 上甚難之, 入議於慈殿, 而許之. 公遂以巨鍼劃破瘡根, 如川字樣, 長各四寸許. 上侍於傍, 用御手止之, 公不少撓, 盡鍼法而出, 坐差備門外. 氣息未及定, 上自內呼公名而促之, 公不勝驚惶, 顛倒入伏. 上教曰:“俄者慈殿受鍼後, 卽進米飲矣.” 喜動龍顏, 公始知無他方, 敢定氣以出. 平復後, 特加嘉善, 卽拜同樞. 公還謂家人曰:“吾於今番, 減壽十年矣.” 莊烈王后移御于於義宮, 久

違豫, 設議藥廳, 以公議遂收效, 陞嘉義, 特下實職之命. 癸亥, 肅廟聖痘後, 喉腫甚重, 公以鍼奏效. 甲子, 除康翎縣監, 以距京遠, 命守畿邑, 遂與抱川縣監相換, 未幾, 又移衿川, 皆特旨也. 己巳, 上候以痛風症受灸, 平復, 命陞資憲.

계축년(1673, 현종14)에 인선왕후(仁宣王后; 孝宗妃, 顯宗母)께서 발제(髮際)에 종기가 생겼는데, 그 뿌리가 매우 크고 독기를 퍼뜨려 병의 증세가 나날이 심해졌다. 아주 적은 양의 죽도 드시지 못한 것이 며칠이 되었다. 성상께서 공에게 들어가 진찰하라고 하셨다. 공이 침으로 종기의 뿌리를 제거하자고 요청하자, 성상께서 대단히 난감해 하시고 자전(慈殿; 大妃宮으로 인선왕후)에 들어가 상의하신 뒤에 허락하셨다. 공이 마침내 큰 침으로 네 치 정도 길이의 천(川)자 모양을 종기의 뿌리에 그어 터뜨렸다. 성상께서 곁에서 인선왕후를 모시고 있다가 손을 저으며 만류하셨는데, 공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침술을 완전히 시행하고 나와 차비문(差備門)⁴ 밖에 앉아 있었다. 숨도 미처 돌리지 못했는데 성상께서 안에서 공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재촉하여 공이 경황없이 넘어질 듯 서둘러 들어가 엎드렸다. 성상께서 “아까 자전께서 침을 맞으신 뒤에 즉시 죽을 드셨다.” 하시면서 기쁜 마음이 용안에 드러나자 공이 비로소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는 감히 기운을 가라앉히고 나왔다. 자전께서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오신 뒤에 특별히 가선대부(嘉善大夫)⁵로 승진시키시고 즉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하셨다. 공이 귀가하여 가족들에게 “내가 이번에 십년감수했다.” 하였다. 장렬왕후(莊烈王后; 仁祖繼妃)께서 어의궁(於義宮)⁶으로 거처를 옮기셨는데 오랫동안 편찮으셨다. 의약청(議藥廳)을 설치했는데 공의 의견으로 조치하여 효험을 보아 가의대부(嘉義大夫)⁷에 오르고, 특별히 실직(實職)을 주라고 명하셨다. 계해년(1683, 숙종9)에 성상께서 천연두를 앓으신 뒤에 목구멍의 종기가 매우 위중했는데, 공이 침을 놓아 효과를 보았다. 갑자년(1684, 숙종10)에 강령 현감(康翎縣監)에 제수되었는데, 서울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상께서 경기도에 속한 고을에 임명하라고 하시고 마침내 포천 현감(抱川縣監)과 바꾸게 하셨으며, 얼마 뒤에 다시 금천 현

감(衿川縣監)으로 옮기게 하셨으니, 이는 모두 성상의 특별히 지시하신 것이
다. 기사년(1689, 숙종15)에 성상께서 통풍(痛風) 증세로 땀을 뜨셨는데, 평상
시의 상태로 돌아오신 뒤에 **자헌대부(資憲大夫)**⁸에 명하셨다.

庚午【肅宗十六年】五月，上患臍腫，四畔堅硬，色甚紫黑，其中日漸浮高而柔軟，如
柿狀。朝野莫不憂惶，以其分野之重也。藥院日引諸醫入診，皆曰：“膿已成，明日可以
破腫。”遂定受鍼之議，公獨奏曰：“以臣診察，此乃痰水，非膿也。鍼之不可，宜灸對臍
穴。”仍與諸醫爭辨，甚力。上問曰：“灸則先有何驗耶？”公對曰：“灸對臍穴，三日後，
必有黃色見於右邊，自此自愈。”上用公議，遂停鍼。同列皆不信，爲公危之曰：“膿若
外潰或漏，其將奈何？”公堅執不動。至其日，果有黃色繞於臍右，向之紫黑，漸變爲
黃，後仍消散，一如公言。崔公有泰，向公拜曰：“吾乃今以後，知君吾師也。”同僚問
曰：“公何以知三日後，必有黃色？”公答曰：“此，天也，非我術也。”人以是益重公。平
復後，特陞正憲。蓋對臍穴，古未嘗有此穴名，而公自以意創名者也。

경오년(1690)【숙종16년】5월에 성상께서 배꼽에 종기가 생기셨다. 배꼽 주위
네 경계가 딱딱하고, 색깔은 자흑(紫黑)으로 매우 짙었으며, 그 중앙이 나날이
점차 높이 부풀어 오르면서 감의 모양처럼 말랑말랑하였다. 조정에서나 재야
에서나 모두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으니, 분야(分野)의 막중함 때문이었다. 약
원(藥院; 內醫院)에서 매일 모든 의원을 불러 진찰하게 했는데, 모든 의원이
“고름이 이미 완성되었으니 내일 종기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여 마침내 침
을 놓는 의견을 확정했는데, 공만이 유독 “제가 진찰한 견해로는 이는 바로 담
수(痰水)이지 고름이 아닙니다. 침을 놓으면 안 되고 대제혈(對臍穴)에 땀을
뜨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뢰었다. 이에 여러 의원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
게 되었다. 성상께서 “땀을 뜨면 어떤 증표가 먼저 나타나는가?” 물으시자, 공
이 “대제혈에 땀을 뜨면 3일 뒤에 반드시 배꼽 오른쪽에 누런 색깔이 나타나
고, 이로부터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대답하였다. 성상께서 공의 의견을 채
택하셔서 마침내 침술 시술을 멈추게 되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의원들이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공에게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고름이 밖으로 터져서 흐르면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했지만, 공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였

다. 그 날이 되자 과연 배꼽 오른쪽에 누런 빛깔이 나타났고, 일전이 자흑색이던 것이 차츰 누런색으로 변하다가 공의 예견대로 뒤에 사라졌다. 최유태(崔有泰)공이 공에게 절하면서 “내가 이제야 그대가 나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였다. 동료 의원들이 “공은 3일 뒤에 반드시 누런색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묻자, 공이 “이는 하늘의 뜻이지, 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이 일로 공을 더욱 존중하였다. 성상께서 평상시의 상태로 돌아오신 뒤에 특별히 **정헌대부(正憲大夫)**⁹로 승진시키셨다. 대제혈은, 옛날에는 이런 혈의 이름이 없었는데 공이 스스로 뜻을 부여하여 이름을 만든 것이다.

辛未【肅宗十七年】春, 拜知樞. 壬申, 上幸章陵, 公以侍衛官隨駕, 中路病泄, 擔舁還家. 上特賜藥蔘三兩, 又遣別監, 兼賜蔘三兩. 甲戌夏, 王世子患項腫, 受鍼平復後, 陞崇政. 癸酉秋, 上候以脚氣平復, 特命賜馬. 乙亥秋, 上候膝部有水氣, 腫痛日甚, 公請灸水道穴, 果有效, 陞崇祿. 丙子夏, 王世子嬪宮, 才經嘉禮入宮, 卽患腹痛, 十餘日尤飭. 公議曰:“必於腹部受鍼, 然後可愈.” 諸醫皆曰:“君何言之妄也? 雖是常人, 腹部何等重大, 而況帝王家幼冲弱質乎?” 公笑曰:“君輩未知耳.” 都提調以諸藥久無效, 不得已以公議入達. 上卽日召問公, 親自臨視, 使公執鍼. 公遂於腹部鍼三處, 鍼已而痛立止. 上嘉之, 下備忘記. 略曰:“嬪宮所患, 一鍼神效, 慶幸何言? 資級已窮, 特賜豹皮一令, 面給馬一匹.”

신미년(1691)【숙종17년】 봄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임신년(1692, 숙종18) 성상께서 장릉(章陵; 仁祖生父 元宗陵)에 행차하실 때 공이 시위(侍衛) 관원으로 수행했는데, 중도에 병이 나서 가마를 타고 귀가하였다. 성상께서 특별히 약삼(藥蔘) 3량(兩)을 하사하시고, 또 별감(別監)을 파견하여 아울러 삼 3량을 하사하셨다. 갑술년(1694, 숙종20) 여름 왕세자께서 목에 종기가 생겼는데, 침을 맞아 쾌차하신 뒤에 **송정대부(崇政大夫)**¹⁰로 승진하였다. 계유년(1693, 숙종19) 가을 성상께서 각기병이 나오셔서 특별히 말을 하사하라고 명하셨다. 을해년(1695, 숙종21) 가을 성상께서 무릎 부분에 수기(水氣)가 생겨 종기의 통증이 나날이 심해졌는데, 공이 수도혈(水道穴)에 뜸을

뜰 것을 제안하여 시행하니 과연 효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송록대부(崇祿大夫)**¹¹로 승진하였다. 병자년(1696, 숙종22) 여름 왕세자빈께서 혼례를 올리고 궁궐에 들어 오시자마자 곧 복통(腹痛)을 느끼셨는데, 10여 일이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다. 공이 “반드시 복부에 침을 놓아야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건의하자, 모든 의원들이 “그대는 어찌 함부로 말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도 복부는 매우 중요한 부위이거늘, 왕가의 어리고 연약한 분은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공이 웃으면서 “그대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도제조(都提調)가 모든 약이 오랫동안 효과가 없자 어쩔 수 없이 공의 의견을 성상께 아뢰었다. 성상께서 그날로 공을 불러 물어보시고, 직접 와서 보시면서 공에게 침을 놓으라고 하셨다. 공이 마침내 복부 세 곳에 침을 놓았고, 침을 다 놓자 고통이 즉시 멈추었다. 성상께서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비망기(備忘記)**¹²를 내리셨는데,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빈궁의 환부에 대해 침 하나로 신묘한 효험을 보았으니, 그 경사를 어찌 말로 표현하겠는가. 품계가 이미 더 오를 곳이 없으니, 특별히 해당 부서에게 표범가죽 한 장을 하사하라고 명하고, 말 한 필을 내가 보는 앞에서 하사하라.”

六月公得血病，上聞之，特賜戶曹蔘三兩，獨蔘茶五貼。八月，賜御藥蔘三兩，後又賜二兩。十二月，醫官入侍時，上問公之病狀於金有鉉。崔聖任等。仍下諭曰：“白醫所見，近神。每於國家患候，累收神效。”其後入侍，上又問曰：“白某之病，邇來何如？”金有鉉陳達病狀，上曰：“所服藥方，文書入。”特賜生蔘三兩，又賜二兩。是時，上候久而違豫，且有腎臚引痛之候。慮或漸腫，而公病已甚。都提調藥泉南相國，使李重蕃來問於公曰：“上候如此，君有何所見？且能強疾入來耶？”公涕泣而起曰：“如教。”子弟等夏之，從傍告曰：“今若勞動，必致添飭。”公訝之曰：“今吾命在朝暮，更瞻天顏，死無憾矣。”即擔舁以行，子姪等扶護，直至差備門外。都提調以公入來上達，上即命入侍。公診察腎臚近處，以匪久當差，必無他慮之意，上達。且陳臣復瞻耿光，雖死無恨。仍涕泣匍匐以出。其夕上教于金有鉉。崔聖任曰：“白某之病，非細也。”即以黃柑一盤，賜兩公曰：“爾等宜袖去傳給。”仍賜藥蔘，內殿又賜珍饌，此，誠異數也。自

是, 公病日篤, 丁丑二月初九日, 卒于松嶼第, 享年七十有三. 臨歿之時, 諄諄如夢中語者, 皆感祝國恩之辭也. 上聞之, 命內司致米布祭需, 長興庫優給紙地物等, 內殿亦令壽進宮致米布. 公卿大夫屈車騎而來吊者, 相屬於途.

6월에 공이 혈병(血病)을 얻었다. 성상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특별히 호조삼(戶曹參) 3량과 독삼차(獨參茶) 5첩을 하사하셨다. 8월에 어약삼(御藥參) 3량을 하사하시고, 뒤에 또 2량을 하사하셨다. 12월에 의관들이 입시했을 때 성상께서 김유현(金有鉉)과 최성임(崔聖任) 등에게 공의 병세를 물으시고, 이어서 “의관 백광현의 견해는 귀신같다. 매번 왕가의 병에 대해 여러 번 신묘한 효험을 보았다.” 말씀하셨다. 그 뒤에 의관들이 입시했을 때 성상께서 또 “백 아무개의 병세가 근자에 어떠한가?” 물으셨다. 김유현이 병세를 아뢰자, 성상께서 “복용하는 약의 처방을 문서로 만들어 들이라.” 하시고, 특별히 생삼(生參) 3량을 하사하시고 또 2량을 하사하셨다. 이때에 성상의 건강이 오래도록 좋지 않으신 상태였는데, 게다가 신수혈(腎腧穴) 부위가 당기면서 아픈 증세가 있었다. 혹시라도 차츰 부어오를까 걱정했는데, 공의 병세가 이미 심각하여 입진(入診)할 상황이 아니었다. 도제조(都提調)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이 이중번(李重蕃)을 보내 공에게 “성상의 증세가 이와 같으니, 그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그대의 병을 무릅쓰고 궁궐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묻자,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 “분부대로 입진하겠습니다.” 하였다. 자제들이 우려하여 곁에서 “지금 힘들게 움직이시면 반드시 더욱 위중한 상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아뢰자, 공이 의아해하면서 “지금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다시 성상의 모습을 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즉시 가마를 타고 떠나자 자제들이 호송하면서 곧장 차비문(差備門) 밖에 이르렀다. 도제조가 성상께 공이 들어왔다고 아뢰자 성상께서 즉시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공이 신수혈 근처를 진찰하고는 ‘머지않아 차도가 있을 것이고 절대 다른 염려는 없다’는 뜻으로 아뢰고, 또한 다시 환한 성상의 모습을 뵈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진달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어서 나왔다. 그날 저녁 성상께서 김유현(金有鉉)과 최성임(崔聖任)에게 “백 아무개의 병이 심각

하다.” 이르시고는 즉시 황감(黃柑) 한 쟁반을 두 공에게 주시면서 “그대들이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라.” 하시고 이어서 약삼(藥蔘)을 하사하셨으며, 내전(內殿; 中殿)에서도 진수성찬을 하사하셨으니, 이는 참으로 특별한 총애였다. 이로부터 공의 병세가 나날이 위독해져서 정축년(1697) 2월 9일에 송현(松峴)의 집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73세이다. 임종할 때에 꿈속인양 차분하고 조용한 말은 모두 국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었다. 성상께서 공의 죽음을 들으시고는 내수사(內需司)에 명하여 쌀과 베 등의 제수를 보내게 하시고, 장흥고(長興庫)에 명하여 종이 등의 물품을 넉넉히 보내라고 하셨으며, 내전(內殿)에서도 역시 **수진궁(壽進宮)**¹³에서 쌀과 베를 보내게 하셨다. 공경대부들 가운데 수레와 말을 타고 조문하러 오는 자들이 길에 이어졌다.

公, 忠孝出於天, 與兄弟友, 待人以誠, 言無表裏, 居家恂恂然和樂, 人未嘗見其疾言遽色. 至於家事, 不費經營, 全靠祿俸, 艱乏居多, 不以爲意, 常晏如也. 每朝門徒滿堂, 雖奴隸之人, 病係深重者, 必極力論治. 至於當大病決死生, 尤瞭然, 如以衡稱物, 不差毫釐. 病家邀公者, 日踏於門, 惟視病之輕重而先後, 不以貴賤而左右. 常朝服而行, 雖丐人囊兒, 若以病告, 則爲之下馬, 隨宜鍼灸, 少無厭苦意. 由是, 一世誼之多稱, 美公之德性, 非特其術業而已.

공은 천성적으로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다. 형제들과 우애가 좋았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며, 말씀은 표리부동하지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온순히 화락하여 사람들이 빨리 말하는 것과 갑작스런 표정 변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집안일에 대해서는 경영하는 데 힘을 쏟지 않고 녹봉에만 온전히 의지하여 인생의 대부분을 가난하게 보냈는데도 개의치 않고 항상 편안한 마음이었다. 매일 아침에 문하생들이 마루에 가득했는데, 비록 비천한 노비라도 병이 심각하게 위중하면 반드시 온힘을 쏟아 치료법을 논구하였다. 생사를 가르는 큰 병을 만났을 때는 더욱 명확하여 마치 저울로 물건 무게를 재는 것과 같아 조금의 어긋남도 없었다. 공을 초청하려는 환자들이 매일 문에 이르렀는데, 오직 병의 경중을 살펴 치료의 순서를 정하고, 신분이 귀하다고 진찰하고 비천하다고 거부하지 않았다. 항상 관복 차림으로 다녔는데, 거지나 빈민촌의 아이라도 아프

다고 하면 말에서 내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침을 놓거나 뜸을 뜸주면서도 싫어하거나 괴로운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 시대의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 대부분 칭송하여 공의 덕성을 아름답게 여겼으니, 단지 그 의술 때 문만은 아니었다.

息庵金相國, 奉使燕京也, 上命公隨行. 公至燕, 有一達官, 以其母病腹塊, 遍求名醫, 醫治不效. 聞公至, 以禮見而求治, 公鍼之而來. 其後十餘年, 燕使來者, 請見公於館伴以聞, 上命往見之. 燕使乃致禮幣, 傳送達官之言曰:“賴公神手, 母病得差. 厚恩久未酬謝.” 仍請得神方, 公曰:“本無書耳.” 請得鍼, 乃出囊中鍼若干以謝, 而還, 盖公之名聞於中國, 可知也. 公之術不由師承, 有若神授者然, 嘗以鍼刺破完人皮膚, 鉤出虫蛇怪物. 搢紳閭巷間奇怪之疾, 賴公鍼藥而生者, 奚但千百而已哉? 然不能一一盡載, 錄其事關國家者若干. 公雖不著書, 其沒後, 以鍼術名世者, 皆公門徒, 而莫不祖述公之法.

1683년(계해, 숙종9) 우의정인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가 사은사(謝恩使)로 연경(燕京)에 갈 때에 성상께서 공에게 그를 수행하라고 명하셨다. 공이 연경에 도착했는데, 청나라의 어떤 고관이 그 어머니가 복부에 덩어리가 멎쳐 앉고 있어서 두루 명의를 찾아 치료했는데 효험을 보지 못했다. 공이 연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를 갖추어 만나 치료를 부탁하여 공이 침을 놓아주고 귀국하였다. 그후 10여 년이 지나 조선에 온 청나라 사신이 관반사(館伴使)¹⁴에게 공을 만나기를 요청하여 성상께 보고하자, 성상께서 공에게 가서 만나라고 명하셨다. 청나라 사신이 공을 만나 예물을 건네면서 그 고관의 말을 전하여 “공의 귀신같은 솜씨에 힘입어 어머니의 병이 나았습니다. 두터운 은혜에 오래도록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신묘한 비방을 얻고 싶다고 하자, 공이 “원래 책이 없습니다.” 하였다. 침을 얻고 싶다고 하자, 공이 주머니 속에 있는 침 몇 개를 꺼내 그에게 주어 사례하고는 돌아왔다. 이를 통해 공의 이름이 중국에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의 의술은 특정한 스승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 의술을 준 듯했으니, 침으로 사람의 피부를 찔러 완전히 갈라 갈고리로 뱀 같이 생긴 괴이한 벌레를 꺼낸 적도 있다. 사대

부나 백성이 기괴한 질병에 걸렸을 때 공의 침이나 약의 도움으로 살아난 자가 어찌 백 명, 천 명에 그칠 뿐이겠는가. 그러나 하나하나 모두 거론할 수는 없고, 국가에 관련된 몇 건의 일화만 기록하였다. 공이 비록 책을 쓰지는 않았으나 그가 죽은 후에 침술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자는 모두 공의 문하생으로 공의 의술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

1. 頂 : 項의 오기이다. 『승정원일기』 참조. ↩

2. 출록(出六) : 정7품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에서 참상관(參上官)으로 오르는 것으로, 승록(陞六)이라고도 하는데, 관로(官路)의 한 관문으로 여겼다. ↩

3. 당상관(堂上官) : 정3품 상계(上階) 이상의 관원이다. ↩

4. 차비문(差備門) : 왕의 집무실인 편전(便殿)의 정문이다. ↩

5. 가선대부(嘉善大夫) : 종2품 품계의 하나로, 가의대부(嘉義大夫)의 아래이다. ↩

6. 어의궁(於義宮) : 서울 사직동(社稷洞)에 있던 궁궐이다. ↩

7. 가의대부(嘉義大夫) : 종2품 품계의 하나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이다. ↩

8.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2품 품계의 하나로, 정헌대부(正憲大夫)의 아래이다. ↩

9. 정헌대부(正憲大夫) : 정2품 품계의 하나로, 자헌대부(資憲大夫)의 위이다. ↩

10. 승정대부(崇政大夫) : 종1품 품계의 하나로, 승록대부(崇祿大夫)의 아래이다. ↩

11. 승록대부(崇祿大夫) : 종1품 품계의 하나로, 승정대부(崇政大夫)의 위

다. ↩

12. 비망기(備忘記) : 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承旨)에게 전하는 문서이다.

↩

13. 수진궁(壽進宮) : 서울 중부 수진방(壽進坊)에 있던 궁궐이다. ↩

14. 관반사(館伴使) : 서울에 머물러 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한 관원으로, 일반적으로 정3품 이상 문관이었다. ↩

1.2. 임상 사례 經驗方

- 1.2.1. 주부 박군 朴主簿顔
- 1.2.2. 공이 한 번은 영의정 백헌 이경석을 찾아뵈었는데 公嘗謁白軒李相國
- 1.2.3. 서씨의 아내는 徐生之室人
- 1.2.4. 강령 황일의 딸이 黃康翎鎰室女
- 1.2.5. 병사 김여흠은 金兵使汝欽
- 1.2.6. 도사 김노득의 아내는 金都事魯得室內
- 1.2.7. 면천 이세유의 아내는 李沔川世瑜室內
- 1.2.8. 지평 김연의 아내는 金持平演室內
- 1.2.9. 도정 김수일은 金都正壽一
- 1.2.10. 백지원은 白志遠
- 1.2.11. 선비 정씨는 士人鄭生
- 1.2.12. 무인 최황은 武人崔璜
- 1.2.13. 선비 김기는 士人金沂
- 1.2.14. 김세헌은 金生世憲
- 1.2.15. 어떤 부인은 一婦人
- 1.2.16. 어떤 의사는 一醫人

1.2. 經驗方 | (부록)임상 사례

1.2.1. 朴主簿額 | 주부 박군

朴主簿額, 卽公之妹夫尙建之父也. 朴, 積年沉病, 公伊時年甫弱冠, 且無顯著述名. 一日爲見妹兄, 詣朴家, 謂妹兄曰:“査丈之病, 是肺癰也. 使我治之, 必愈矣.” 朴聞之, 大叱曰:“年少人豈知我病耶?” 後朴果吐膿而死. 臨歿, 歎曰:“白生, 眞天生神醫也. 吾悔不用其言也.” 朴之孫禧, 卽公之姪女夫也. 禧常言於人曰:“白公之神術, 可謂天生, 非學習而然也.”

주부(主簿) 박군(朴額)은 바로 공의 매형인 상건(尙建)의 아버지이다. 박군이 병을 앓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공은 그때 겨우 약관의 나이였고 의술로 명성이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매형을 만나러 박군의 집에 갔다가 매형에게 “사돈 어른의 병은 바로 폐옹(肺癰)입니다. 나에게 치료하게 하시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박군이 이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나이 어린 자가 어찌 나의 병을 알겠느냐?” 질타하였다. 그 뒤에 박군이 과연 고름을 토하면서 죽었다. 박군이 임종할 때에 “백광현(白光玆)은 정말 하늘이 낳은 신묘한 의사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하였다. 박군의 손자 박희(朴禧)는 바로 공의 조카사위이다. 박희가 항상 사람들에게 “백공의 신묘한 의술은 타고난 것이니, 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1.2.2. 公嘗謁白軒李相國 | 공이 한 번은 영의정 백헌 이경석을 찾아뵈었는데

公嘗謁白軒李相國, 適有年少生在座. 公問曰:“此卽誰也?” 相公曰:“新得孫婿愼爾憲也.” 公曰:“觀其形色, 肺癰膿已成也.” 愼生曰:“吾眠食如常, 別無痛處也.” 公診脉曰:“夜來必大痛, 若數日, 則必難治矣.” 愼生不信其言, 但冷笑, 相公亦不信. 其夜果大痛, 相公大驚求治. 公遂鍼破出膿, 月餘獲痊. 門徒曰:“愼生. 朴君之病, 公何以知其肺癰成也?” 公答曰:“肺癰之爲病, 飲食起居如常, 而成膿者, 惟其觀形察色, 而辨其膿否也.”

공이 한 번은 영의정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을 찾아뵈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젊은이가 한 명 있었다. 공이 “이 분은 누구십니까?” 묻자, 백헌공께서 “새로 얻은 손녀사위 신이헌(愼爾憲)입니다.” 하셨다. 공이 “모습과 얼굴빛을 보니, 폐옹(肺癰)으로 고름이 이미 가득합니다.” 하자, 신이헌이 “저는 자고 먹는 것이 정상이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공이 진맥을 한 뒤에 “밤사이에 반드시 크게 아플 것이고, 며칠이 지난다면 절대 치료하지 못합니다.” 했지만, 신이헌은 공의 말을 믿지 않은 채 냉소를 보낼 뿐이었고 백헌공께서도 역시 믿지 않으셨다. 그 밤에 과연 큰 통증이 있어 백헌공께서 대경실색하여 치료를 요청하셨다. 공이 마침내 침을 놓아 고름을 빼내니, 한 달 여 만에 병이 나았다. 문하생들이 “신이헌과 박군의 병에 대해 공께서는 폐옹(肺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자, 공이 “폐옹이라는 병은 음식과 주거 등의 생활이 평상시와 같으니, 고름이 되는 것은 오직 모습과 얼굴빛을 관찰하여 고름의 여부를 변별해야 한다.” 대답하였다.

1.2.3. 徐生之室人 | 서씨의 아내는

徐生之室人, 卽文谷相公之庶姪女也. 左腹高脹, 日漸添飭, 其大如斗. 或云塊症, 或云痰病. 延綿七箇月委頓, 床席飲食全廢. 相公謂公曰:“庶姪女得此奇疾, 方在死境. 君若一診, 則症可辨矣?” 公診之曰:“此, 胎脉, 古所謂‘偏胎’, 是也. 月滿則必生男子矣.” 病婦聞之大喜, 卽起進食. 月滿, 果生男. 相公常言於朝曰:“白醫, 非治腫而已, 雜病奇疾亦能. 切脉而知之, 可謂華扁之儔矣.”

서씨(徐氏)의 아내는 바로 영의정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서출 조카딸이다. 왼편 복부가 높이 팽창했는데, 나날이 점차 심해져 크기가 말(斗)과 같았다. 어떤 이는 괴증(塊症)이라 하고 어떤 이는 담병(痰病)이라고 하였다. 7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쇠약해져 침식을 전폐하게 되었다. 문곡공께서 공에게 “서출 조카딸이 이런 기괴한 병을 얻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대가 한 번 진찰한다면 증세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이 진맥을 하고 “이는 태맥(胎脉)이니, 옛날에 편태(偏胎)라 한 것이 이 경우입니다. 달이 차면 반드시 사내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하였다. 병을 앓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즉시 일어나 식사를 하였다. 달이 차자 과연 사내아이를 낳았다. 문곡공께서 항상 조정 관원들에게 “의원 백광현(白光琰)은 종기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잡스런 병과 기괴한 병도 제대로 치료한다. 진맥을 하고 증세를 알아내니 화타(華陀)와 편작(扁鵲)의 짝이라고 할 만하다.” 하였다.

1.2.4. 黃康翎鎰室女 | 강령 황일의 딸이

黃康翎鎰室女, 腹病數月, 鍼藥無效. 公診曰:“此, 古所謂‘髮瘕’也. 痰之爲病, 變化無常, 而此則飲食之際, 雜物混入, 膽液聚凝, 化成物象, 不可徒事內治. 古人治此疾者, 有單服眞油吐下之法, 而此則不可行也.” 遂以腫鍼鍼臍傍, 以曲鍼取出白虫, 長尺餘, 其狀如蛇. 沈熱醋, 乃一頭髮也. 病遂愈.

강령(康翎) 황일(黃鎰)의 딸이 복부에 병이 난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침도 약도 효과가 없었다. 공이 진맥한 뒤에 “이는 옛날에 발가(髮瘕)라고 한 것입니다. 담(痰)이 병이 되는 것은 변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먹고 마실 때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 담액(膽液)과 뭉쳐 형체가 있는 물건처럼 변화한 것이니, 내치(內治)만 일삼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 병을 치료했던 사람은 진유(眞油; 참기름) 하나만을 먹어 토하(吐下)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는 시행하면 안 됩니다.” 하였다. 마침내 종침(腫鍼)으로 배꼽 주위에 침을 놓은 뒤에 곡침(曲鍼)으로 백충(白虫)을 꺼냈는데, 길이가 한 자 남짓 되고 모양이 뱀과 같았다. 뜨거운 식초에 넣어봤더니 바로 머리카락이었고, 병은 마침내 나았다.

1.2.5. 金兵使汝欽 | 병사 김여흠은

金兵使汝欽, 無名指, 屢日刺痛. 公視曰:“此, 非疔, 乃痰化成虫也.” 以三稜鍼刺, 取紅虫三箇而出, 病即愈.

병사(兵使) 김여흠(金汝欽)은 며칠 동안 무명지에 찌르듯이 아팠다. 공이 살펴 보고 “이는 정창(疔瘡)이 아니고, 바로 담(痰)이 충(虫)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였다. 삼릉침(三稜鍼)으로 찌러 홍충(紅虫) 3개를 꺼내자 병이 즉시 나았다.

1.2.6. 金都事魯得室內 | 도사 김노득의 아내는

金都事魯得室內, 素患塊症, 形體瘦削, 又患傷寒, 彌留十餘日. 忽一夜肌膚豐肥, 有若浮腫者. 息庵金相公, 與諸醫療治無效. 相公令公診之, 公曰:“此, 非浮腫, 乃病去而氣實形肥也. 雖不服藥, 自愈矣.” 相公猶不信. 果如其言, 遂爲無病, 肥澤婦人. 相公常稱曰:“白君, 可謂當今神術也.”

도사(都事) 김노득(金魯得)의 아내는 평소에 괴증(塊症)을 앓아 몸이 비썩 말랐는데, 또 상한(傷寒)을 앓아 10여 일 동안 낫지 않았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피부가 부풀어 올라 마치 부종(浮腫)인 듯한 증상이 나타났다. 우의정인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께서 여러 의원들에게 치료하게 하셨는데 효험이 없었다. 식암공께서 공에게 진찰하게 하시니, 공이 “이는 부종(浮腫)이 아니고, 바로 병이 나은 뒤에 기운이 강해지고 몸이 살찐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더라도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했지만, 식암공께서 믿지 않으셨다. 과연 그 말과 같아서 마침내 병이 없었고, 부인은 건강하고 튼실하였다. 식암공께서 항상 “백광현(白光玼)은 현대의 신의(神醫)라고 할 만하다.” 칭찬하였다.

1.2.7. 李沔川世瑜室內 | 면천 이세유의 아내는

李沔川世瑜室內, 素患塊症, 彌留七載, 腹痛愈瓴. 公診曰:“此, 虫病也. 鍼刺腹部, 注下一物, 然後獲差矣.” 李家求治, 公即鍼三處曰:“夜來必注下一物也.” 其夜果下一物, 狀如鼠, 而口有紅點, 目亦赤矣. 翌日又診曰:“積年痰瘕, 化成物象, 而然也. 自此, 可以無病矣.” 其後果年踰七旬, 無病而卒.

면천(沔川) 이세유(李世瑜)의 아내는 평소에 괴증(塊症)을 앓았는데, 7년 동안 낫지 않아 복통이 더욱 심해졌다. 공이 진찰한 후에 “이는 충병(虫病)입니다. 침으로 복부를 찔러 하나의 물질이 흘러나오게 한 뒤라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세유가 치료를 요청하여 공이 즉시 세 곳에 침을 놓은 뒤에 “밤사이 에 반드시 하나의 물질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였다. 당일 밤에 과연 하나의 물질이 흘러나왔는데, 모양이 쥐와 같고 입에는 붉은 점이 있으며 눈도 역시 붉었다. 다음날 또 진찰하고 “몇 년 동안 쌓인 담어(痰瘕)가 변하여 형체가 있는 물건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뒤에 과연 칠순을 넘기면서 병 없이 죽었다.

1.2.8. 金持平演室內 | 지평 김연의 아내는

金持平演室內, 卽松峴申尙書女也. 右邊下腹, 刺痛月餘, 醫治無效. 尙書問於公曰: “沉病兩月, 今至垂死, 而尙未執症. 君若一診, 則症可辨矣?” 公診曰: “此, 虫病也. 痰滯化成, 而作痛.” 遂以腫鍼鍼之, 以曲鍼取出一條虫, 體大而長尺餘矣. 尙書大異曰: “若無今日之神眼, 則幾喪吾女矣.”

지평(持平) 김연(金演)의 아내는 바로 송현(松峴)에 거주하는 신 상서(申尙書)의 딸이다. 오른쪽 하복부에 찌르듯이 통증이 있는 지 한 달 넘었는데, 치료해도 효험이 없었다. 상서께서 공에게 “두 달 동안 병이 깊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한 번 진찰하면 원인을 변별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셨다. 공이 진찰한 뒤에 “이는 총병(虫病)입니다. 담(痰)이 뭉쳐 변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종침(腫鍼)으로 침을 놓고, 곡침(曲鍼)으로 긴 벌레 한 개를 꺼냈는데 몸이 크고 길이가 한 자 남짓 되었다. 상서께서 매우 진기하게 여기시면서 “만일 오늘 귀신 같은 안목이 없었다면 나의 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셨다.

1.2.9. 金都正壽一 | 도정 김수일은

金都正壽一, 常患大便乾燥之症, 四五日不通, 則有若垂死者然. 一世名醫踵其門, 而多服硝黃峻利之劑, 終無效. 公診曰:“脉度和平, 不可謂有病, 切勿服藥. 每朝, 白粥調蓴麻油二三匙, 服之可也.” 果試有效. 其家常種蓴麻, 以備之.

도정(都正) 김수일(金壽一)은 평상시에 대변이 마르는 병을 앓았는데 사오일 동안 대변이 나오지 않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한 시대의 명의들이 그 집 에 이르렀는데, 대부분 강력히 통하게 하는 망초·대황〔硝黃〕 같은 약제를 처방했으나, 결국 효험이 없었다. 공이 진찰한 뒤에 “맥도(脉度)가 화평하여 병 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절대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에 흰 죽에 비 마유(蓴麻油; 아주까리기름) 두세 숟가락을 섞어서 드시는 좋습니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하자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집안은 항상 비마(蓴麻)를 심어 대비 하였다.

1.2.10. 白志遠 | 백지원은

白志遠, 手足及遍體發紅斑, 狀如八梢魚, 脚部有時作痛, 痛不可忍. 醫治半載, 百藥無效. 公視曰: “此病, 不難治也. 以落蹄目黑睛汁, 頻塗之, 則不過五日, 瘡盡祛矣.” 志遠雖不信, 病勢無奈, 不得已而如公言, 病遂療. 門徒問其故, 曰: “此病乃火瘡, 而根不着也. 凡海族雖水類, 而亦有屬火者. 落蹄乃陽中之陽也, 以八梢治斯病而愈者, 以火治火之意也.”

백지원(白志遠)은 수족과 온 몸에 붉은 점이 생겼는데 모양이 팔초어(八梢魚; 문어) 같았다. 다리 부위는 간혹 통증이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다. 의사가 반 년 동안 치료했지만 모든 약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 공이 보고서 “이 병은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낙제(落蹄; 작은 문어)의 눈알 중에 검은자위를 즙으로 내어 자주 바르면 5일이 지나지 않아 종기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하였다. 백지원이 믿지 않았지만, 병세를 치료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의 말대로 하자 병이 마침내 나았다. 문하생이 그 이유를 물으니, “이 병은 바로 화(火)로 인한 종기인데 뿌리가 고착되지 않은 것이다. 해물은 모두 수(水)에 속한 것이지만 역시 화(火)에 속한 것도 있다. 낙제(落蹄)는 바로 양(陽) 가운데의 양물이다 팔초어(八梢魚)로 이 병을 치료하여 낫게 한 것은 화(火)로 화(火)를 다스린 뜻이다.” 하였다.

1.2.11. 士人鄭生 | 선비 정씨는

士人鄭生, 數日脚痛, 一醫治以脚氣, 一醫治以痰腫. 公診曰:“可謂奇病矣.” 遂鍼刺箕門穴下, 以手取出死骨六寸許, 痛即止. 仍付糯米飯, 引出毒氣而愈.

선비 정씨(鄭氏)는 며칠 동안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어떤 의사는 각기(脚氣)로 치료하고, 어떤 의사는 담종(痰腫)으로 치료했다. 공이 진찰한 뒤에 “기이한 병이라 할 만합니다.” 하였다. 마침내 침으로 기문혈(箕門穴) 아래를 찌르고, 손으로 여섯 치 남짓 되는 죽은 뼈를 꺼내자 통증이 즉시 그쳤다. 이어서 나미반(糯米飯)을 붙여 독기를 뽑아내자 나았다.

1.2.12. 武人崔璜 | 무인 최황은

武人崔璜, 脚痛歲餘, 諸醫皆以脚氣治之, 或鍼或灸, 刺痛尤甚. 公診曰:“此, 虫病也.” 卽鍼環跳上, 取出一虫, 狀如蛇而長尺餘. 遂屈伸不痛, 而動作如常, 因而勿藥. 至公歿後, 崔常往來言之.

무인 최황(崔璜)은 일 년 남짓 다리에 통증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가 모두 각기 (脚氣)로 치료하여 침을 놓기도 하고 뜸을 뜨기도 했지만, 찌르는 듯한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공이 진찰한 뒤에 “이는 충병(虫病)입니다.” 하였다. 즉시 환도혈(環跳穴) 위에 침을 놓고, 벌레 하나를 꺼냈는데 모양이 뱀과 같고 길이가 한 자 남짓 되었다. 마침내 다리를 굽히고 펼 때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다. 공이 죽은 뒤에 최황이 항상 왕래하면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1.2.13. 士人金沂 | 선비 김기는

士人金沂, 右手掌後, 痰聚自潰, 數年痛痒, 完合無期. 公視曰: “瘡久則¹⁵, 自然之理, 而昭在方書中. 痰潰後久不合, 則成¹⁶者, 甚無疑. ¹⁷除, 則可以完合.” 使之卽付熱牛肝, 紅蜚如細魚狀者數十餘箇, 貼於牛肝而出. 仍以散鍼去其惡血, 貼糯米飯, 而瘡痊.

선비 김기(金沂)는 오른쪽 손바닥 뒤에 담(痰)이 뭉쳐 저절로 터졌다. 몇 년 동안 아프면서도 가려운데, 완전히 봉합될 기대가 없었다. 공이 보고는 “종기가 오래되면 식(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니, 이는 의학서적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痰)이 터진 뒤에 오랫동안 봉합되지 않으면 식(蝕)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식(蝕)이 제거되면 완전히 봉합될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에게 즉시 뜨거운 소의 간을 붙이게 하니, 세어(細魚) 모양의 붉은 벌레 수십 여 개가 소의 간에 붙어서 나왔다. 이어서 산침(散鍼)으로 나쁜 피를 제거하고 나미반(糯米飯)을 붙이자 상처가 나았다.

15. 飾: 蝕의 오기이다. ↩

16. 飾: 蝕의 오기이다. ↩

17. 飾: 蝕의 오기이다. ↩

1.2.14. 金生世憲 | 김세헌은

金生世憲, 常患齒痛, 積年療治, 齒已落, 痛不可忍. 公視曰: “齒痛者, 飾¹⁸病居半, 而至於此病, 則齒雖落, 蛭已成. 蛭除, 則痛亦止矣.” 卽鍼齦, 取紅蛭三箇, 形如鼠婦而有生氣, 痛立止. 門生問曰: “飾¹⁹與蛭, 有異乎?” 公曰: “蛭與飾²⁰, 皆瘀血挾痰而成. 然蛭者有形, 而亦有生氣, 故痛痒俱甚. 飾²¹者雖有形, 而無生氣, 故不痛而只痒也. 余屢見齒痛甚而落者, 破其齒, 則骨中皆有蛭也.”

김세헌(金世憲)은 항상 치통을 앓았다. 몇 년 동안 치료했지만, 치아가 이미 빠졌는데도 통증을 참을 수 없었다. 공이 보고는 “치통이라는 것은 식병(蝕病)의 경우가 태반인데, 이 병의 경우는 치아가 빠졌으나 충(虫)이 이미 되었습니다. 충(虫)이 제거되면 통증이 그칠 것입니다.” 하였다. 즉시 잇몸에 침을 놓아 홍충(紅虫) 3개를 꺼냈는데 모양이 쥐며느리와 같고 생기가 있었는데, 통증이 즉시 그쳤다. 문하생이 “식(蝕)과 충(虫)이 다른니까?” 묻자, 공이 “충(虫)과 식(蝕)은 모두 어혈이 담(痰)을 끼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충(虫)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고 생기도 있기 때문에 통증과 가려움이 함께 심하다. 식(蝕)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아프지는 않고 가려울 뿐이다. 내가 치통이 심하면서 치아가 빠진 사람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잇몸을 찢으면 뼈에 모두 충(虫)이 있었다.” 하였다.

¹⁸. 飾: 蝕의 오기이다. ↩

¹⁹. 飾: 蝕의 오기이다. ↩

²⁰. 飾: 蝕의 오기이다. ↩

²¹. 飾: 蝕의 오기이다. ↩

1.2.15. 一婦人 | 어떤 부인은

一婦人, 左手魚際分野, 爲刀所傷, 仍成疔腫, 醫治閱月而完合矣. 半年後, 尺澤分野, 微浮刺痛, 且肩井. 肩髃近處痛甚, 鍼藥無效. 公診曰: “此, 金瘡餘毒也. 必鍼舊瘡, 流散毒氣, 然後可愈也.” 主人亦粗解醫理者也, 甚不然曰: “舊瘡完合, 已踰兩月, 豈可治舊瘡乎?” 公曰: “但試之.” 卽鍼舊瘡, 出惡血數種²², 痛立止而病遂差.

어떤 부인은 왼손 어제혈(魚際穴) 부근에 칼에 의해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이어서 정종(疔腫)이 되었는데, 의사가 한 달 넘게 치료해서 완전히 봉합되었다. 반년 이후에 척택혈(尺澤穴) 부근이 약간 부어오르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또한 견정혈(肩井穴)과 견우혈(肩髃穴) 근처가 매우 아팠는데 침을 맞고 약을 먹어도 효험이 없었다. 공이 진찰한 뒤에 “이는 금속에 의한 상처의 여독입니다. 반드시 옛 종기에 침을 놓아 독기를 흡여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그 남편도 의술의 이치를 대략이나마 이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옛 종기가 완전히 봉합된 지 이미 두 달이 넘었으니, 어찌 옛 종기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공이 “일단 한 번 해보시지요.” 하고, 즉시 옛 종기에 침을 놓아 나쁜 피 몇 종지를 빼내자, 통증이 즉시 멈추고 병이 마침내 나았다.

²². 種: 鍾의 오기이다. ←

1.2.16. 一醫人 | 어떤 의사는

一醫人, 忽然自耳門分野, 有若蛭行之狀, 昏倒不省者, 有時矣. 醫者或云中惡, 或云藏中, 症狀莫辨. 邀公求治, 診視則六脉和平, 而及見其口中, 乃曰: “有此石腫也.” 因鍼刺舌下縫, 取出石塊如銀杏大者數箇, 而卽甦. 門徒問其故, 答曰: “此, 酒熱所祟. 歷試累驗, 酒家或有此病云.” 醫人, 卽金有章也.

어떤 의사는 갑자기 이문혈(耳門穴) 근처에 벌레가 기어 다닌 듯한 증상이 있었는데, 때때로 기절하여 혼수상태가 되었다. 의사 가운데 어떤 이는 중악(中惡)이라 하고, 어떤 이는 장중(藏中)이라 하여 증상을 판별할 수 없었다. 공을 초청하여 치료를 부탁하자, 공이 진찰했는데 육맥(六脉)이 화평하였다. 입 안을 보고서야 “석종(石腫)이 있다.” 하고는 침으로 설소대²³를 찔러 은행 크기의 돌덩이 몇 개를 꺼내자 즉시 깨어났다. 문하생이 그 이유를 묻자, “이는 술의 열기가 원인이다. 두루 시험하고 여러 번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간혹 이런 병이 있다.”고 하였다. 대답하였다. 의원은 바로 김유장(金有章)이다.

右十六條神效經驗方, 適載藥院院誌, 故臚書之.

이상 16개 항목은 신묘한 효험을 보인 임상 사례로, 마침 약원(藥院; 內醫院)의 기록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베껴서 쓴 것이다.

²³. 설소대 : 혀의 아랫바닥과 입의 점막을 잇는 힘살. ↩

1.3. 白知事墓表 | 백 지사 묘표²⁴

君姓白氏,諱光玆,字微叔,林川人,近世所稱‘神醫’者也.少時習騎射,補羽林軍.墜馬傷病久,始有志爲醫.每出射場,暇則出囊中鍼磨之.偶射者戲曰:“若欲殺人耶?”君答曰:“若曹將求活於我耳.”聞有病瘡瘍者,輒自往治之.如是積久.自然有悟於心,能審症於形聲之間,所爲治病死生驗者如契,然未甚知名.有市人病蹙者,從君求治,君治之,一日蹙者平步入市,一市人大驚,於是名日起.

군은 성이 백씨(白氏), 이름이 광현(光玆), 자가 미숙(微叔)으로 관향(貫鄉)이 임천(林川)인데 근세에 신의(神醫)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말 타기와 활쏘기를 익혀 우림군(羽林軍)²⁵에 들어갔는데, 말에서 떨어져 다치고 그 부상이 오래 지속되자 비로소 의사가 될 뜻을 품었다. 활터에 나갈 때마다 여가가 생기면 주머니 속에서 침을 꺼내 갈았는데, 짝을 이루어 활을 쏘는 동료들이 놀리면서 “그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자, 백 군이 “너희들은 장차 나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답하였다. 부스럼을 앓는 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치료해주었다. 이와 같이 치료가 누적되고 시일이 오래 지나자 저절로 마음에 깨달음을 얻어 환자의 모습과 목소리만을 통해서도 증세를 간파할 수 있었고, 병을 치료하여 죽으려는 자를 살려낸 효험이 정확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였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을 앓고 있는 상인이 있었는데, 그가 백 군에게 치료를 요청하여 백 군이 치료해 주었다. 하루는 그 절뚝거리던 상인이 일반인처럼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장에 들어오자 모든 상인들이 깜짝 놀랐다. 이 일을 계기로 백 군의 명성이 나날이 퍼져나갔다.

白軒李相國薦入內醫院,實顯廟癸卯也.自是歷事顯.肅兩朝三十餘年,累奏神效,輒加階,至崇祿大夫知中樞府事.間除康翎縣監,以去京遠,換抱川,換衿川,而皆出特旨,所以寵遇之者甚渥.君病將死,上數使人問之,間賜藥物.黃柑,內殿亦以珍饌.駱粥賜之.訃聞,兩殿各致賻優厚,亦異數也.

상국(相國)²⁶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²⁷이 백 군을 천거해 내의원(內醫院)에 들어갔으니, 그 때는 바로 현종(顯宗) 계묘년(1663)이다. 이때부터 현종과 숙종(肅宗) 두 임금을 30여 년 동안 섬겼는데, 계속 신통한 효과를 내었고 그때마다 관계(官階)가 올라 승록대부(崇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강령(康翎)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천(抱川) 현감으로 바뀌고 또 금천(衿川) 현감으로 바뀌었다. 이는 모두 임금의 특별한 뜻에 의한 것으로 임금의 은혜가 매우 큰 것이다. 백 군이 병들어 임종이 가까워지자, 임금께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병의 증세를 묻고 그때마다 약재와 굴을 하사하셨으며, 내전(內殿)에서도 역시 진귀한 음식과 타락죽(駝駱粥)을 하사하셨다. 부음이 알려지자 대전과 내전에서 각각 부의를 후하게 내렸으니, 이 또한 특별한 예우였다.

君之術不由師承，自能心解手應，若有神授。往往鍼刺人完膚，鉤出虫蛇奇恠物，其神機妙用，有不可測者。肅廟患臍腫甚重，四圍色紫黑柔軟，諸醫皆曰：“已膿，將鍼破之。”君獨抗爭曰：“此，非膿也。灸對臍穴，則三日後必有黃氣見於右邊，而病自止矣。”對臍穴，君自以意創名者也。上命灸之，過三日，果有黃氣繞臍右。上曰：“白光玓，可謂神矣。”卽日命罷藥院直。或問其故，君謝曰：“此，天也，非我也。”其奇驗多類此。息庵金相國每歎賞曰：“白君，問世人，雖謂之功存社稷，可也。”

백 군의 의술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터득하여 손이 저절로 호응할 수 있었으니 마치 귀신이 의술을 준 것 같았다. 종종 침으로 시술하는데 피부에는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갈고리로 벌레와 뱀 같은 기괴한 것을 꺼냈으니, 그 신묘한 방법과 오묘한 운용은 헤아릴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숙종이 배꼽에 부스럼이 생긴 병을 앓아 매우 위중했는데, 환부 주위의 색깔이 검붉고 말랑말랑해졌다. 모든 의원들이 “이미 끓었으니 침으로 터트려야 합니다.” 했으나, 백 군이 홀로 반대하면서 “이것은 고름이 아닙니다. 대제혈(對臍穴: 배꼽혈)에 뜸을 뜨면 사흘 뒤에 반드시 누런 기운이 오른쪽 주변에 나타나면서 병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제혈’은 백 군이 스스로 생각하여 새로 지은 이름이다. 임금께서 대제혈에 뜸을 뜨라고 명하니

사흘이 지난 뒤에 과연 배꼽 오른쪽에 누런 기운이 둘러졌다. 임금께서 “백광현은 신의(神醫)라고 할 만 하다.” 하고는 그날 즉시 내의원의 당직을 면제하라고 명하셨다. 혹자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는지 묻자, 백 군이 겸손한 태도로 “이것은 하늘이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 신묘한 효험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상국 식암(息庵) 김석주(金錫胄: 1634~1684)가 매번 탄복하면서 “백 군은 보기 드문 사람이니, 사직(社稷)을 보존한 공적이 있다고 말해도 괜찮다.” 칭찬하였다.

君忠信孝友, 輕財喜施, 聲名重一世, 而不以術自高. 車馬日盈²⁸, 惟視病輕重, 不以貴賤爲先後. 朝衣冠過市, 雖丐人. 囊兒, 以病告, 則必爲之下馬診視, 無絲毫厭苦色, 其德性亦如此. 嗚呼, 扁鵲以技見殃, 倉公當刑堇免, 是皆有以取之, 而君能以壽貴福祿終焉者, 以其操術謙而樹德博也. 故余特書之, 以爲百世醫者之勸云爾.

백 군은 진심을 다하고 신뢰를 지키며 효성이 있고 우애가 있으며, 재물을 중시하지 않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명성이 한 시대에 높았으나 의술이 뛰어나다고 잘난 체 하지 않았다. 말과 수레가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나 오직 병의 경중만 살피고 신분의 귀천으로 선후를 삼지 않았다. 관복 차림으로 저자를 지나갈 때 비록 구걸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아이라고 해도 그가 병으로 호소하면 반드시 그를 위해 말에서 내려 진맥하고 살펴보았는데 조금도 싫어하거나 괴로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니, 그 덕성이 역시 이와 같았다. 아, 편작(扁鵲)은 자신의 의술 때문에 재앙을 만났고 창공(倉公)은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겨우 면제받았으니, 이는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백 군은 장수와 부귀와 복록을 누리다가 삶을 마쳤으니, 이는 그가 의술을 겸손히 시술하고 은덕을 넓게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특별히 그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모든 의원을 권면하는 것이다.

君曾祖諱瑞龍, 廣興主簿贈判決事; 祖諱仁豪, 贈左尹; 考諱哲明, 僉樞贈判尹. 妣貞夫人昌寧曹氏, 僉樞德建之女. 君生於乙丑, 卒於丁丑. 配, 清州韓氏, 子興聲亦以鍼術名世.

백 군의 증조부 백서룡(白瑞龍)은 광흥창(廣興倉) 주부(主簿)를 역임하고 판결사(判決事)에 증직(贈職)되었고, 조부 백인호(白仁豪)는 한성부(漢城府) 좌윤(左尹)에 증직되었고, 부친 백철명(白哲明)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고 한성부 판윤(判尹)에 증직되었다. 모친 정부인(貞夫人) 창녕 조씨(昌寧曹氏)는 첨지중추부사 조덕건(曹德建)의 따님이다. 백 군은 을축년(1625)에 태어나서 정축년(1697)에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청주 한씨(淸州韓氏)이다. 아들 백흥성(白興聲)도 역시 침술로 세상에 명성을 날렸다.

24. **백 지사 묘표** : 조현명(趙顯命, 1691-1725)이 지은 귀록집에 실려 있는 백광현의 묘표로, 번역하여 지사공유사 뒤에 부록으로 실어둠. 『귀록집(歸鹿集)』 歸鹿集卷之十四 墓表 白知事墓表 ↩

25. **우림군(羽林軍)** : 궁중(宮中)의 숙위(宿衛)를 담당하는 군대이다. ↩

26. **상국(相國)** : 재상. ↩

27. **이경석(李景奭)** : 1595~1671. ↩

28. **問** : 門의 오기이다. ↩

2.1. 해제

2.1.1. 저자와 연대 및 간행 목적

<지사공유사 부경험방(知事公遺事 附經驗方)>은 조선 후기 유명한 침의(鍼醫)였던 백광현(白光炫)의 생애와 의료 행적에 관해 기술한 저자와 연대 미상의 책이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백광현을 기리고 그 행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후손이나 제자가 썼을 것으로 추측된다. 책을 저술한 정확한 연대 역시 알 수 없으나 숙종을 뜻하는 ‘숙묘(肅廟)’라는 단어의 등장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경종 대 이후에 씌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 제목의 ‘지사공(知事公)’이란 백광현을 가리키는데, ‘지사(知事)’란 조선시대 정2품 관직을 말한다. 백광현은 말년에 중추부의 정2품 무관 벼슬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지사공은 백광현을 이르는 말이며 ‘유사(遺事)’란 죽은 사람이 남긴 사적(事跡)을 뜻하므로, 결국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이란 백광현 지사공이 남긴 자취와 행적 및 그의 경험 처방 부록이란 뜻이다. 현재 책의 원본은 일본의 행우서옥(杏雨書屋)에, 사본은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2.1.2. 책의 구성

이 책은 ‘지사공행적(知事公行跡)’과 ‘경험방(經驗方)’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사공행적 부분에서는 백광현이 의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왕실에서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본래 무인(武人)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의인(醫人)이 되었으며 어떤 계기로 명성을 얻어 내의원(內醫院)에 천거되었는지를 전한다. 또한 여러 왕실 인물들의 질병을 치료한 사건과 이에 대한 포상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사망할 당시의 정황 및 청나라에까지 명성이 알려졌던 사실도 전하고 있다. 경험방 부분에서는 백광현의 치료 사례 16가지를 전하고 있다. 침으로 피부를 절개하여 충(蟲)이나 사

골(死骨) 등을 적출한 치료 사례, 침술을 사용하지 않고 약재를 통해 질병을 치료한 사례, 형색과 맥을 통해 병을 진단한 사례 등 총 16가지 치료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사례마다 환자의 이름을 함께 적어서 기록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2.1.3. 집안과 생애

백광현은 인조 3년(1625년)에 태어나 숙종 23년(1697년)에 7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임천 백씨 가문의 31세손으로 9남 3녀 중 2남이었다. 백광현의 행적을 전하는 책에는 개인 문집, 족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런데 책에 따라 白光玼, 白光炫, 白光鉉, 白光顯과 같이 백광현의 한자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임천백씨족보>와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白光玼으로 표기하고 있으므로 白光玼이 옳은 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천 백씨 가문은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집안이었다. 백광현 역시 무예를 익혀 궁궐을 수비하는 군대인 금려(禁旅)에 들어갔다. 군인 생활을 하던 중 낙마로 인해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한 유명한 의사의 치료를 받아 회복된 것을 계기로 의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백광현은 침술을 익혀서 종기를 주로 치료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시장 사람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병을 앓는 것을 치료해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명성을 얻었고 이후 환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되었다. 이렇게 명성을 얻게 되자 당시 내의원 도제조를 맡고 있던 이경석의 추천에 의해 마침내 내의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내의원에 입성한 후 현종, 인선왕후, 장렬왕후, 숙종, 왕세자(경종), 왕세자빈(단의왕후)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점점 품계가 올랐고 여러 포상을 받았다. 현종의 종기를 치료한 공로를 세운 후 정3품 상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이 이루어졌다. 이후 치료에 공을 세울 때마다 품계가 올라 말년에는 종1품 상계 숭록대부(崇祿大夫)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또한 벼슬을 하사 받아 동지중추부사, 지중추부사, 강령 현감, 포천 현감, 금천 현감의 직을 제수받기도 했다. 72세 되던 해에 **혈병을 앓기 시작했고¹** 결국 이 병으로 인해 73세 되던 해에 사망했다. 사망하기 직전 숙종에게 병이 생겼을 때 병든 몸을 이끌고 입궐하여 숙종의 상태를 진단했다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대한 충심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1.4. 주요 의료 행적

이 책에서 전하는 백광현의 주요 의료 행적은 침술, 진단, 용약의 3가지 방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침술은 종기, 발가(髮瘰), 충병(虫病), 각통(脚痛), 폐옹(肺癰), 치통 등에 활용되었다. 특히 인선왕후의 발제종창(髮際腫瘡)에 활용된 천자형(川字形) 절개법이 주목할 만하다. 거침(巨鍼)으로 창근(瘡根)을 천(川) 자 모양으로 길이 네 치(四寸) 정도를 절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느 의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침법으로 백광현 자신의 독창적인 침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종침(腫鍼)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곡침(曲鍼)으로 충(虫)이나 발가(髮瘰)를 끄집어냈으며 때로는 사골(死骨)이나 석괴(石塊)²를 끄집어내기도 했다. 이 책의 경험방 부분에서 전하는 16개의 치료 사례 중 4가지가 충병인데 모두 침술로 치료했다. 당시에는 기생충 질환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침술로 환부를 절개한 후 기생충을 적출했던 것이다. 진단 방법의 활약은 제종(臍腫), 폐옹, 편태(偏胎), 부종 등의 질병에서 돋보인다. 속종이 제종을 앓았을 때 다른 모든 의관들이 배농(排膿)을 위해 침파(鍼破)할 것을 주장했으나 오직 백광현만이 담수(痰水)로 진단하고서 뜸법을 쓸 것을 주장했고 이것이 적중했다.³ 박군과 신이현의 질병을 폐옹으로 진단한 것, 김수향의 서출 조카딸의 상태를 편태로 진단한 것⁴, 김노득의 아내가 부종이 아니라 건강한 상태라 진단한 것은 백광현이 진단 능력 역시 뛰어났음을 알게 해준다. 백광현은 침으로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약으로도 병을 고쳤다. 김수일이 변비를 앓고 있을 때 비마자유로 만든 죽을 복용하도록 했고 백지원이 흥반을 앓을 때 낙제(落蹄) 눈알의 즙을 바르게 해서 치료했다. 김기가 손바닥에 오래된 궤양을 앓고 있을 때 소의 간을 환부에 붙여서 낫도록 했다. 이렇게 약재를 써서 치료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단방 약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2.1.5. 연도의 착오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에 기록된 사건의 연도에 착오가 보이는 곳이 몇 군데 있다. 먼저 현종의 종기를 치료하여 당상관으로 승진한 해를 이 책에서는 현종 12년(1671년)인 신해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현종 11년(1670년)**으로 기록하고 있다.⁵ 인선왕후에게 커다란 발제종창이 생겨 천자형 절개법으로 치료한 해가 계축년인 현종 14년(1673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현종 13년(1672년)**임을 알 수 있다.⁶ 왕세자의 종기를 치료한 해를 갑술년인 숙종 20년(1694년)이라고 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는 왕세자는 **숙종 19년(1693년)**에 종기를 앓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⁷ 백광현이 지중추부사에 제수된 해를 숙종 17년(1691년)인 신미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숙종 19년(1693년)**이다.⁸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연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이 책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써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광현 사망 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책을 저술하였기에 발생 연도가 부정확한 부분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연도가 차이 나는 경우는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국정에 관한 기록인 <승정원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2.1.6. 책의 의의

백광현은 의술이 뛰어나 신의(神醫)라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사망 후 장례를 치를 때에는 조문 행렬이 길거리에 줄을 이룰 정도로 당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광현은 자신의 의술을 담은 책을 직접 저술하지는 않았기에 어떤 질병에 어떤 치료법을 구사했는지 그 상세한 의술을 알기는 힘들다. 다만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이라는 책이 남겨져 있기에 조선 후기 유명한 침의였던 백광현의 행적과 의술을 일부분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비록 의서를 남기진 않았지만 백광현은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 백광현의 제자와 두 아들 그리고 임천 백씨 집안의 여러 후손들은 백광현의 의술을 이어받아 침의로 활동하였다. 백광현의 의술이 책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사람으로는 전해졌던 것이다. 이는 곧 조선 후기의 침술은 백광현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후인이 <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이라는 책을 따로 저술하여 백광현의 행적이 사장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도록 애쓴 것을 보더라도 조선 후기에 백광현이라는 이름이 남긴 족적이 매우 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작성자 방성혜

1. 72세 되던...시작했고 :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에서는 단순히 혈병(血病)이라 되어 있으나 <임천백씨족보>에서는 토혈지증(吐血之症)이라고 전하고 있다. ↩
2. 사골(死骨)이나 석괴(石塊) : 환자의 설하봉(舌下縫, 설소대)을 절개한 후 석괴를 끄집어내었던 치료 사례의 질병은 침샘과 침샘관에 석회물질(돌, 타석)이 묻쳐 침의 통로가 막히는 질환인 타석증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3. 이것이 적중했다 : 속종의 제종(臍腫)에 대한 내의원 의관들의 진단은 배꼽에 생긴 종기라는 것이었고 백광현의 진단은 복수(腹水)로 인해 배꼽이 부어 오르는 배꼽탈장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편태로 진단한 것 : 자궁 기형 중 하나인 단각 자궁의 경우 임신이 되면 배가 한쪽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를 편태라 말한 것으로 보인다. ↩
5. 현종 1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 <현종개수실록> 현종 11년 8월 16일 기사에 의하면 의관 백광현에게 가자(加資)하는데 이는 성상의 병환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6. 현종 13년임을 알 수 있다 :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인선왕후는 여러 차례 종기를 앓았다. 그 중 현종 13년에 인선왕후의 종환이 나날이 심해져(慈殿腫患漸重) 백광현의 의견을 구했고(上曰 尙誠·光玪 入內指教 可也) 또 침술을 행할 때 현종이 친히 옆에서 살피겠다(命取鍼來親審)고 한 기록이 있다. 현종 14년에도 종기를 앓기는 했으나 이때는 크기가 작은 종기인 절(癧),

혹은 소절(小癰)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사공유사 부경험방>의 내용처럼 창근이 크고 독기가 심해서 4치 길이로 절개해야 할 위중한 종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

7. **숙종 19년에...되어 있다**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2월 1일부터 왕세자의 종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치료가 마무리된 후 2월 22일에는 의관 백광현의 공로가 크므로 특별히 가자(加資)한다는 기록이 있다. ↩

8. **숙종 19년이다** : <승정원일기> 숙종 19년 1월 2일 기사에 백광현을 지중추부사로 삼는다(白光珰爲知中樞府事)는 기록이 있다. ↩

출판사항

<참고> 글꼴 설정을 "원본"으로 지정해야 글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글꼴 적용 로딩시간이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명 : 국역 지사공유사 知事公遺事

원저자 : 미상

국역 : 남성우

해제 : 방성혜

편집 : 문진

발행인 : 이해정

발행처 :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2월 10일

주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대표전화 : 042)868-9482

글꼴 출처 : 함초롬체(한글과컴퓨터)

기여한 사람들

이 책의 번역을 기획하고 판본을 조사·수집한 이는 오준호이고, 정본화 된 원문 텍스트를 만든 이는 이정현이며, 역자와 책의 방향을 논의한 이는 박상영이고, 원서에 가까운 모습으로 eBook을 편집하여 온라인에 공개한 이는 구현희입니다.

copyright © 2016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전한의번역서 e-book @ 한국한의학연구원

